

맛쥐 : 일본에서 가장 작은 포유류

도쿄맛쥐라고도 불리는 꼬마뒤쥐(학명: *Sorex minutissimus hawkeri*)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포유류 중 하나입니다. 이 종은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데, 코에서 꼬리까지 겨우 5cm 밖에 되지 않습니다. 구시로 주변의 초원과 습원에 서식하며 곤충을 먹습니다.

맛쥐는 쥐를 닮았지만, 두더지나 고슴도치와 더 가까운 관계에 있는 종입니다. 꼬마뒤쥐는 홋카이도에 서식하는 4 종의 맛쥐 중 하나입니다.

‘도쿄맛쥐’라는 이름은 단순한 표기 실수에서 비롯되었습니다. 도쿄맛쥐가 메이지시대(1868~1912 년)에 발견되었을 때 도쿄맛쥐의 표본에는 홋카이도를 뜻하는 ‘Ezo’라는 표기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 후에 ‘Ezo’를 도쿄의 옛 이름인 ‘Edo’로 잘못 읽어 도쿄맛쥐라는 이름으로 정착된 것입니다.